



## 김일영 (주)풀린키 대표이사 “고객 신뢰받는 회사로 입지 굳힐 것”

김일영 (주)풀린키 대표이사는 인쇄 출력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2010년 중국 화광그래픽스의 씨벌 CTP 판재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쇄와 인연을 맺게 됐다. 최근에는 한국HP 총판을 맡으면서 아시아 최초로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데모센터를 오픈했다. 김일영 대표이사를 만나 데모센터 오픈 배경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 풀린키는 어떤 회사인가?

2003년 설립된 풀린키는 출력 및 인쇄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급과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장비 및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인쇄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2010년 중국 Lucky(화광) Graphics의 씨벌 CTP 판재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면서부터다. 이후 2012년 9월 한국코닥과 코닥 프리너지 워크플로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2013년 12월 인디고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지역 최초로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데모센터를 설치했는데.

한국HP 인디고 총판인 MIS는 맞춤형 애플리케이션 인쇄 지원하는 'HP 인디고 7600', 라벨패키징 전용 'HP 인디고 WS6600'을 중심으로 데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풀린키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데모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HP가 우리나라에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데모센터 설치를 결정한 것은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한국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데모센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데모센터의 중심은 당연히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다. 지난 드루파2012를 통해 소개됐던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는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며 특히 다양한 인쇄분야에 접목가능한 75cm 포맷을 자랑한다. 포켓 폴더, 6페이지 브로슈어, 포스터, 대형 레이플랫 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쇄물을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65~450g까지 코팅, 비코팅, 메탈, 재활용, 특수용지 및 포장용 상자 등 다양한 두께의 종이에 작업할 수 있다.

데모센터 일부에는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를 이용해 세계 각국에서 작업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전시돼 있어 이 좋은 기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답을 제공하고 있다.

데모센터에는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 외에도 동급 최고속도의 포토프린터인 'HP 디자인젯 Z6200 포토프린터'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가능한 '다목적 프린터 HP 디자인젯 L26500'도 설치돼 있다. 또한 주 식회사위, 기선, GMP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다양한 후가공 솔루션도 설치돼 있어 인쇄부터 제책, 후가공까지 전 과정을 한번에 잡힐 수 있다. 또 유세스파트너스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디지털인쇄에 최적화된 '토털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유세스파트너스는 웹투프린트 솔루션인 'SDPH', 제작, 주문의뢰, 전처리 작업 등 생산관리부터 주문, 후처리까지 인쇄작업을 간소화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HP Smart stream', 포토북 제작 솔루션인 'TAOPIX' 등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데모센터는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 도입을 고려하는 인쇄사 직원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간이 넓어 디지털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와 설명회 장소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디지털인쇄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매업인쇄 시장은 2005년까지 성장하다 2005년 55억 유로를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26억 유로를 기록해 2005년 이후 약 53%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P 인디고 인쇄물량은 2008년 A4 90억장에서 2012년 A4 200억장으로 급증하는 등 디지털인쇄시장은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인쇄 시장은 고품질 소량인쇄, 가변데이터, 짧은 납기 등의 요구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제 디지털인쇄는 사진시장을 넘어 상업, 패키징, 출판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시장 공략 방안은 무엇인가?

화광 써멀 CTP 판재를 공급하면서 많은 출력소, 인쇄사와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다. 현재 출력소는 약 300개 업체, 인쇄사는 약 200개 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프리프레스 업체의 경우 기존 거래처를 중심으로 홍보 및 영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인쇄사 고객에게는 HP 인디고 장비 홍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4년전 화광그래픽의 써멀 CTP 판재를 공급하면서 맞닥뜨린 것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일이었다. 중국의 제품은 싸구려 제품이라는 인식이 많아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도 고객들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 꾸준히 노력한 끝에 화광그래픽의 써멀 CTP 판재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금 HP 인디고 데모센터도 같은 마음을 갖고 시작하고 있다.

기본 바탕은 고객의 성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HP 인디고 10000 디지털 프레스'가 고가의 장비인 만큼 인쇄사 고객들이 선불리 결정하지 말고, 데모를 충분히 활용한 다음 구매를 결정하길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

